P117

혈액투석중인 환자에서 Indomethacin으로 치유된 복강-심낭 단락 1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한병근, 윤현진, 이재명, 김진수, 최승옥

유지혈액투석중인 환자에서 요독성 심낭염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는 집중적인 투석을 하거나 국소적인 헤파린의 사용 등이 일반적인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낭천자, 심낭 개창술 등과 같은 침습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본 저자들은 기존의 비침습적인 방법과 침습적인 방법으로 모두 호전이 안되어 indomethacin을 사용한 후 복수, 심낭삼출액이 완전 치유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7세 남자 환자가 복부팽만,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과거력상 11년전에 말기신부전증을 진단받고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며 9년전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고 4년전에 만성거부반응으로 다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내원 8개월 전부터 복부팽만이 있었고 1개월 전부터 늑막 삼출액, 심낭 삼출액이 있어 요독성 심낭염 의심하에 1차로 입원하여 집중적인 혈액투석후 임상증세의 호전이 있어 퇴원하였으나 다시 재발을 하여 집중적인 혈액투석과 복강천자술을 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어 심낭개창술을 시행하였다. 시술후에도 배액되는 심낭 삼출액의 양이 줄어들지 않고 복부에 힘을 주면 배액량이 증가한다고 호소해 복강내에 Tc-99m을 주입하고 시행한 검사에서 복강과 심낭의 단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indomethacin 75mg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총 3개월 동안 약물 복용과 함께 유지혈액투석을 받았으며 8개월이 지난 현재 복수와 심낭 삼출액의 재발이 없이 완전 치유되어 혈액투석을 계속 받고 있다.

P118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환자에서 영양 상태와 투석의 적절도

박미정 · 이균상 · 김정기 · 박병석 · 마성권 · 나명윤 · 정 권 · 고정희 · 염충호 · 김수완 · 김남호 · 최기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배경 및 목적: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영양결핍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이에 관여하는 인자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석의 적절도와 영양 상태간의 연관성 및 임상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대상: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을 시행한지 최소 6개월 이상 된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Urea Kinetic Modeling(UKM) 을 통해서 투석의 적절도를 평가하였으며 혈청 생화학적 검사실 소견 및 nPCR, nPNA를 구해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고 투석의 적절도와 영양 상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44.4±13.4 세 였고 남자가 60명, 여자가 42명 이었으며 평균 주당 총 Kt/V_{urea}는 1.89±0.71, 총 weekely creatinine clearance (WCC) 는 57.85±29.15 L/1.73 m^2, nPNA는 0.93±0.27 g/kg/day nPCR은 0.93±0.27 g/kg/day 이었다. 총 Kt/V_{urea} 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자는 nPCR (r=0.234, p=0.028), nPNA (r=0.246, p=0.021), 총 WCC (r=0.479, p=0.0001), 혈청 albumin (r=0.221, p=0.039), 혈청 cholesterol (r=0.266 p=0.013), 혈청 BUN (r=-0.290, p=0.006) 및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r=-0.408, p=0.0001)였다. 또한 nPNA는 혈청 cholesterol (r=0.217, p=0.045), 혈청 transferrin (r=0.218, p=0.042) 및 혈청 ferritin (r=0.220, p=0.043)치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복막염 및 기타 감염성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이환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임상 양상, 검사실 소견, nPCR, nPNA 및 투석의 적절도를 비교하였을 때, 이환군에서 연령 (p=0.001) 이 더 많았고, 복막투석 기간 (p=0.0001)도 장기간이었으며, CRP (p=0.021) 가 증가하였으나 혈청 알부민치와 총 WCC 는 이환군에서 더 낮았다(p=0.020, p=0.017).

결론: 복막투석 환자에서 투석의 적절도와 영양 상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적정 영양상태 유지에 적절한 투석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며 임상 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